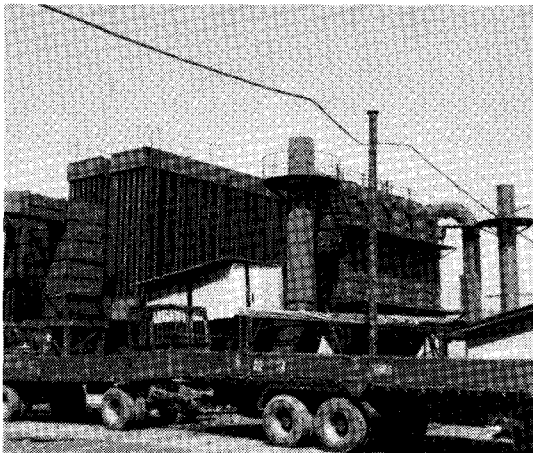


## 용선로 집진시설 개선으로 개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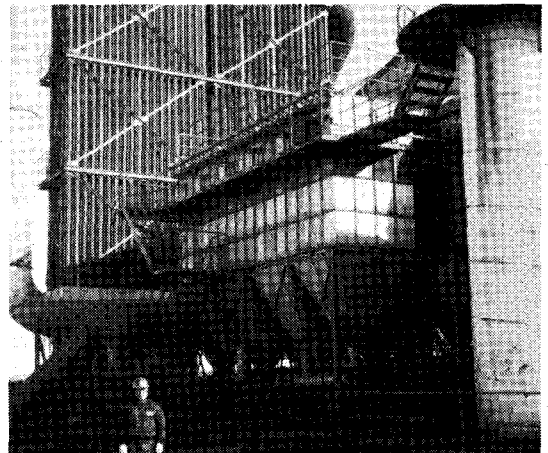
환경산업의 기수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를 찾았다.

1953년 한국기계주물제작주식회사로 창립되어 우리나라 상수도용주철관 및 강관을 생산해 내어 우리생활에 크게 기여해 왔는데 1962년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면서 눈부신 성장을 하여 이제 연간 5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며 이중 20%가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6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닥타일 주철관을 생산하여 연간 42,000톤 생산 국제적인 주철관 메이커로 발돋움했으며 과학기술상과 최우수품질 신뢰상을 수상한바 있고 현재에는 거의 모든 생산제품이 KS 표시허가를 얻고 있으며 그밖에도 ISO규격, ANSI 규격, AWWA규격 그리고 BS규격에도 준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명실공히 수도용관류의 종합메이커로 성장하였다. 특히 환경관리에 있어서도 경영인과 환경담당실무자와의 혼연일체로 생산의 극대화를 올리고 있었다.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형기실험실장을 만나보았다. 조형기(46세) 실장은 환경관리인으로써 1969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꾸준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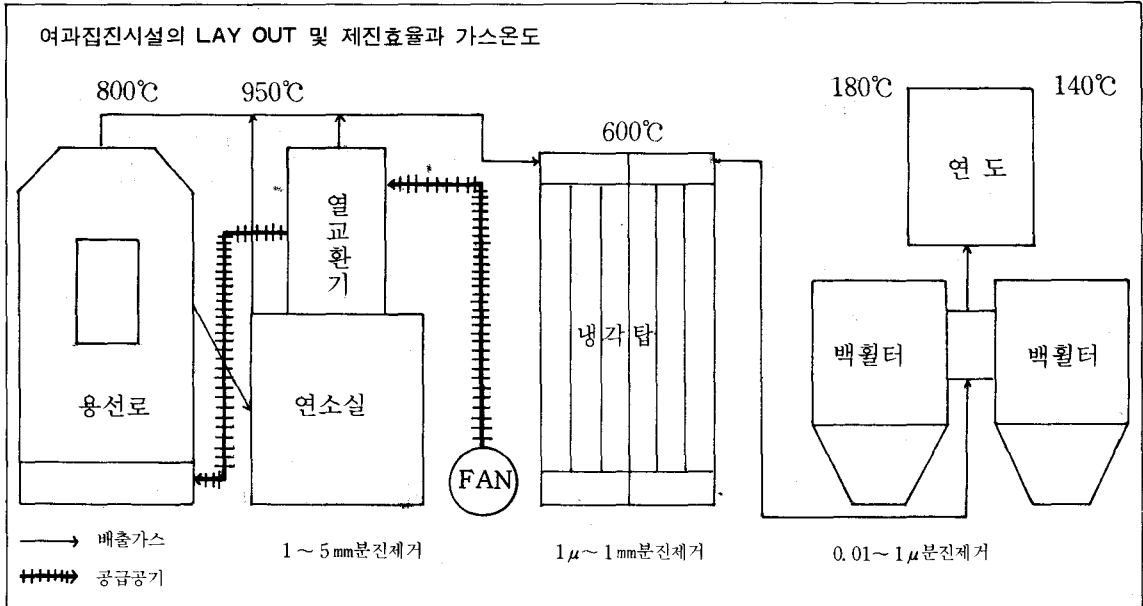
구와 노력으로 무려 11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실력과 환경관리인으로 현재 부산·경남환경관리자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용선로 집진시설 개선으로 큰 성과를 얻고 있어 타 관리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있다. 환경관리업무를 하는 관리인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일터에서 방지시설 개선 사례로 보람을 얻는다는 것은 큰 기쁨일 것이다. 개선사례를 보면 먼저 배출가스가 950℃ 이상의 고온인데다 무연탄과 코크스에서 연소후 나오는 회분과 고철(선철) 및 석회석에 부착되어 용선로에 들어갔다가 매연과 함께 합진가스로 배출되는 미세분진 등 0.01 $\mu$ 에서 5mm에 이르는 다양한 입도의 분진을 어떠한 방법으로 집진할 것인가와 무연탄과 코크스에 함유된 유황(S)이 연소시 산화되어 아황산가스(SO<sub>2</sub>)로 배출되는 가스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1979년부터 집진과정을 여러차례 시설개수 및 개선하면서 현재 국내최대의 집진율(98%)의 여과 집진시설(백필터)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실험분석을 통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데 조형기 관리인은 이렇게 말한다.



수·공냉식 여과집진시설



필프식 여과집진시설



집진시설을 할 때는

“배출가스의 특성, 배출량, 함유물질 및 제거 물질 등을 엄밀히 조사 검토한 후에 소기의 목적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못지않게 집진시설이 배출가스 용량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설계용량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 또한 실무에서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관리인이 사명감과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시설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터득하여 사후관리를 잘 해야 희망하는 집진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피나는 노력의 댓가로 환경산업장에

서 성공의 탑을 이루어 놓고 있는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의 방지시설 현황을 보면 원심력 집진 시설 2기, 여과 집진시설 9기, 화학폐수처리시설 1기로 총 12기가 갖추어져 있으며 환경관리 전담 부서로 실험실에서 환경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환경관리의 첨단을 걸고 있는 느낌이였다. 인력으로 보더라도 환경기사 대기 1급 2명, 환경기사 대기 2급 1명, 폐수 2급 1명 등으로 회사 규모에 맞는 환경시설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선진 환경산업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 표지인물을 말한다.

대한환경공학 회장이시며,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계시는 정 재기 박사님을 이달의 표지인물로 모셨다.

정박사님은 1927년 경상북도에서 태어나 서울공대 화공과를 졸업하시고,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으며, 그동안 중앙대 교수를 16년간 재직하신후, 인하공업전문대학장을 거쳐 인천시교육회장, 경기도 환경자문위원, 상공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환경청 정책자문위원과 인천직할시 환경분야 자문위원, 환경보전협회 인천직할시 지부 자문위원으로 계시며, 1971년 국민훈장을 서훈하셨다.